



그룹 방탄소년단이 팀 활동 잠정 중단 발표 이후 해체설 등이 불거지자 “각오는 했지만 씁쓸하다”며 토로했다. 사진제공 | 빅히트뮤직

리더 RM “괜한 객기 부렸나” 소속사 하이브 “오해 있다”

BTS 전격 활동중단 선언 후폭풍

해체설에 추가폭락...서둘러 봉합 분위기
“끝이 아니다” 강조...정작 청사진은 없어

“괜한 객기를 부렸나 싶은 생각이 든다.”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그룹 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폭탄선언’이 몰고 온 후폭풍이 거세다.
이들은 케이(K)팝의 아이콘으로 세계 최정상에서 “우리가 잠깐 멈추고, 쉬어도 앞으로의 더 많은 시간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라며 14일 밤 그룹 활동을 잠시 멈추고 각자 활동에 나설 뜻을 밝힌 뒤 ‘그룹 해체설’ 등에 휘말렸다. 소속사 하이브의 시가총액도 하루 만에 2조 원이나 날아갔다.

급기야 이들은 갖은 추측과 논란을 조기 진화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하이브 측은 “오해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 확산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해체설’ 등을 부인했다.
리더 RM은 16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앞으로 팀으로든, 개인으로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룹 해체 수순’ 등 추측에 “해체 라든가 ‘활동 중단’ 등 자극적이고 단면적인 키워드가 참 많았다”면서 “이럴 줄 몰랐던 것도 아니고 각오하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참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14일 밤 공개한 유튜브 ‘찐 방탄회식’ 영상도 “9년간 함께해준 모든 아미(팬)에게 헌정하며 그들에게 하고 싶은 고백이자 고해성사”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내놓은 신곡 ‘Yet To Come(아직 올 것)’을 떠올리며 “진실로 말하고 싶었던 건 절대대로 지금이 끝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열하는 장면만 캡처되

고 재확산돼 괜한 객기를 부렸나 싶은 생각도 든다. 솔직하고 싶은 용기는 역시 언제나 불필요한 오해와 화를 부르는 것 같다”며 씁쓸해했다.

이에 앞서 소속사 하이브 측도 적극적인 해명과 상황 설명에 나섰다. 박지원 대표는 15일 오후 자사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일을 통해 “방탄소년단은 팀 해체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팀 해체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없다”고 못 박으며 “개인 및 팀 활동은 상호 시너지 하에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일 새 앨범 ‘프루프’(Proof)를 내놓은 방탄소년단은 16일 엠넷 ‘엠카운트다운’에 이어 17일 KBS 2TV ‘뮤직뱅크’, 19일 SBS ‘인기가요’ 등에 출연한다. 또 부산시가 최근 하이브에 방탄소년단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 활동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국가적 중요 행사의 취지에 크게 공감한다”면서 “아티스트의 스케줄 등 내부 검토를 거쳐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방탄소년단의 향후 행보가 또다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정현 기자 annjoy@donga.com

1위
ABC 공연 유료·발행부수
4년 연속 1위

스포츠동아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www.sportsdonga.com



‘천재’가 돌아왔다. 발가락 부상으로 시즌 출발이 늦었지만, 빠른 속도로 정상 기량을 되찾고 있다. 최근 6경기에서 5할을 웃도는 타율과 더 붙여 시속 176.5km의 타구 스피드를 찍었다. 15일 수원 SSG전 3회말 무사 1·2루서 1타점 2루타를 터뜨리고 있는 KT 강백호. 수원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공의 움직임이 보인다”...타구 스피드 177km

그 ‘強백호’가 돌아왔다

〈강할 강〉

강백호 부상 복귀 후 장타력 빠르게 회복
최근 6경기 타율 0.524 볼방망이 매운맛
수비훈련에도 구슬땀...이달 말 수비 출전
이강철 감독 “강백호·박병호 시너지 기대”



부상으로 시즌을 늦게 시작한 KT 위즈 강백호(23)가 특유의 스타일을 되찾아가고 있다. 최근 6경기에서 연속 안타행진을 펼치고 있고, 최고 타구 스피드는 시속 176.5km까지 나왔다. 이달 말에는 수비도 가능할 전망이다. 원래의 모습을 완벽히 되찾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치 않은 분위기다.

시즌 개막 직전 발가락 피로골절이 발견돼 수술을 받은 강백호는 재활을 거쳐 이달 초 복귀했다. 초반 4경기까지는 실전감각이 떨어진 탓에 안타를 신고하지 못했다. 9일 고척 키움 히어로즈전 첫 타석에서 마수없이 안타를 때렸다. 이를 기점으로 15일까지 6경기에서 21타수 11안타(타율 0.524)로 매섭게 방망이를 돌렸다. 아직 아치는 그러지 못했지만, 11안타 중 2루타가 6개일 정도로 장타력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강백호는 15일 수원 SSG 랜더스전에서 의미 있는 수치 하나를 기록했다. 첫 타석에서 SSG 선발 이반 노바를 상대로 2루타를 뽑았는데, 타구 스피드가 시속 176.5km로 측정됐다. 올 시즌 그가 생산한 가장 빠른

타구였다. 이날까지 올 시즌 10경기에서 평균 타구 스피드는 시속 147.3km다. 지난해 평균 타구 스피드(144.7km)를 넘어선다.

14일 SSG전에 앞서 “서서히 공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아직 몸통 회전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고 스스로 진단했지만, 데이터는 이미 지난해와 다름없이 강한 타구를 뽑아내고 있음을 입증한다.

수술을 한 발을 보호하기 위해 맞춤 깔창을 준비하는 등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있는 강백호는 최근 수비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고 있다. 아직은 정면 타구 처리에 집중하고 있지만, 6월 말 정상적인 수비 출전을 목표로 수비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강철 KT 감독도 일단은 타격에만 집중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주루플레이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기본에만 충실하도록 주문한다. 점수차가 벌어지면 경기 후반부에는 대주자로 바뀌겠다. 트레이닝 파트에서 완벽하다고 평가했을 때 수비와 주루에서도 정상적 플레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강백호의 수비가 가능해지면 박병호도 한숨을 돌릴 수 있다. 이 감독은 “(강)백호가 없는 동안 (박)병호에게 부담이 쏠렸다. 내색은 안 하지만 힘들 것이다. 백호가 수비가 가능해지면 병호를 지명타자로 출전시키면서 체력을 안배해주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팀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KT가 기대하는 강백호-박병호의 시너지 효과를 본격적으로 누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

• 식품유형 : 과채음료 • 원산지 : 양배추작금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함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